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한지*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6. 8. 7(일) ~ 8. 27(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홈스테이 집에서 버스를 타고 20-30분 정도 걸렸고, Langara-49t 역과 가까워 이동시 편리했습니다.</p> <p>학교의 규모는 크진 않았지만, 건물 내 카페테리아에 런치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과 카페,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습니다.</p> <p>방학기간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많지 않아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p>
수업	<p>수업 첫 날 오전에 레벨테스트를 통해 5개의 클래스로 나눠집니다. 테스트는 토익과 비슷한 리스닝 위주였습니다.</p> <p>일본인 학생이 많아 한 클래스에 한국인은 소수였습니다.</p> <p>수업은 학교에서 나눠준 바인더로 진행되며, 클래스마다 수업 진행방식이 달랐습니다. 우리 클래스는 밴쿠버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기본적인 회화나 위급상황 대처 수업부터 문화적 차이, 캐나다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p> <p>파트너를 정해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룹으로 진행하는 활동이 많아 반 아이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p> <p>과제는 많은 편은 아니었고,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이 정해 준 주제에 대해 써 오는 저널이 있었습니다. 과제는 주로 홈스테이 가족을 인터뷰하는 식이었습니다.</p> <p>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수업을 하고 단체로 밴쿠버를 견학하는 Activity가 많았고, 3시까지 오후 수업이 있는 날도 있습니다.</p>
Activity	<p>일주일에 2~3번 정도 Activity가 진행되는데, 클래스 별로 움직이게 됩니다.</p> <p>카약킹, 밴쿠버 투어, 아쿠아리움, 박물관과 휘슬러 투어가 있었습니다.</p>

	<p>카약킹을 할 때에는 해가 강해 선글라스와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살이 금방 타기 때문에 덥긴 하지만 긴팔을 추천하고, 물이 튀겨 옷이 젖기 때문에 여분의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p> <p>밴쿠버투어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장소를 돌려고 해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준비하세요.</p> <p>휘슬러 투어 때는 산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지고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겹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이 두꺼운 옷 한 벌 보다는 그때그때 입고 벗기 편한 옷으로 준비하세요. 리프트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지만 중간 중간 등산 같은 코스가 있으니 편한 신발은 필수입니다.</p> <p>추가비용이 따로 필요는 없지만 간식이나 식사를 사먹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밴쿠버의 여름은 우리나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과 비슷합니다. 도착 후 며칠은 비가 오거나 흐려 많이 추워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그 후 날이 풀려 계속해서 화창했습니다.</p> <p>해가 많이 뜨겁지만 습하지 않아 불쾌하진 않습니다. 또 그늘로 들어가면 바로 시원해집니다.</p> <p>아침저녁으로 선선하고, 건물 안은 계속해서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 교실이 많이 춥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남방을 가지고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p> <p>해가 강해 선글라스와 선크림은 정말 필수입니다.</p>
안전	<p>치안은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홈리스들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조금의 경계와 무시가 필요합니다.</p> <p>그리고 캐나다는 9시 정도만 되면 거의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주택가도 조용해지며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 홈스테이 집으로 돌아갈 때 많은 주의를 하며 귀가하시기 바랍니다.</p> <p>차이나타운과 개스타운 바로 옆 거리는 많이 위험하니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스타운은 밴쿠버 투어 한 그 길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p>
숙소	<p>엄마, 아빠, 8살 여자아이 하나, 1살 남자아이 하나가 있는 캐나다인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 홈스테이 학생을 신경 쓸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p>

	<p>1층은 홈스테이 학생들이, 2층은 홈스테이 가족들이 사용했는데 1층에 주방이 따로 있어 구비된 음식을 알아서 찾아 먹도록 했습니다.</p> <p>저녁은 이른 시간인 5-6시 사이에 먹어 대부분 밖에서 먹고 들어갔으며,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을 시 3시 전까지 문자를 해 음식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p> <p>아기가 있어서 아이가 잠자는 9시 이후에 샤워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었으며, 학교에서 정해진 통금시간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문자를 해 늦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p> <p>한 명의 UBC 어학연수 온 일본인 홈스테이 학생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에 홈스테이 가족보다 이 친구와 더 어울려 식사를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p> <p>한국에서도 평소 아침을 잘 먹지 않았고,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게 아니라 알아서 찾아 먹어야 했기에 거의 아침을 걸렀습니다.</p> <p>점심은 전날 저녁에 싸 냉장고에 넣어두어 다음날 챙겨가도록 했습니다. 주로 샌드위치였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는 더 사먹거나 한국에서 가져왔던 컵라면을 가끔 먹었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이 많았기에 컵라면을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p> <p>저녁은 주로 밖에서 사 먹었고, 집에서 먹을 시에는 미리 내 뭇의 저녁을 남겨 달라 홈스테이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p>등하교를 할 때 버스를 2번 타야했습니다. 첫 날 학교에서 나눠준 교통카드를 이용했으며, 버스와 스카이트레인 1존은 모두 가능했기에 교통을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p> <p>그러나 밴쿠버가 아닌 리치몬드나 버나비 같은 2존을 스카이트레인으로 이용할 때에는 표를 따로 사는 것 보다 카드에 돈을 충전해 사용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711,2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350,000	
기념품 및 선물	350,000	선물
쇼핑	300,000	화장품, 옷, 생활용품
핸드폰 유심	50,000	1G, 밴쿠버 내에서만 사용가능. 전화,문자 무제한(chatr)
교통비	14,000	
입장료	37,000	캐필라노 서스펜션브릿지, 아트갤러리, 리치몬드야시장 등
합계	약 1,100,000	(캐나다 환율 870원 기준)

5. 출국 전 준비사항

한국의 가을 날씨를 생각하고, 온도별 옷차림을 확인해 옷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얇은 긴팔과 긴바지는 필수이며, 두꺼운 티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신발은 정말 가능한 평소에 신던 신발을 준비하시고, 많이 걸어야하기 때문에 밑창이 얇은 단화보다는 운동화를 추천합니다.

또 사전에 매칭된 홈스테이 가정에 먼저 메일을 보내 준비해 가야 할 물건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건이나 드라이기, 세면도구, 실내화 같은 물건을 챙겨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3주라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영어실력 향상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 본다는 마음으로 갔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쉬운 마음 없이 다녀오려고 했었습니다.

이후 캐나다로 단기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은 한국인끼리만 어울리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됩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료식을 할 때 그동안 더 어울리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영어를 공부하기에는 짧지만, 밴쿠버를 여행하는 데 3주는 나름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밴쿠버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본다는 생각으로 여행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갈 곳을 정하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첫 일주일을 너무 열심히 돌아다녀서 나중에는 어디를 가야할지 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제재를 많이 받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해 아쉬웠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구글맵을 정말 많이 의존했었습니다. 밴쿠버에 가기 전 핸드폰에 다운받아 놓으시고 사용법을 익혀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카약킹



그랜빌 아일랜드



리치몬드 야시장



휘슬러 빌리지



휘슬러 트립



잉글리시 베이